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5. 26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보험 〈 은행' 주담대 금리역전 이어진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h53cTH

통상 2금융권인 보험사 금리가 은행 대비 높아야 하나 금리의 전반적 상승 국면에서도 은행권 주담대 금리부담이 더 커지면서 보험사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역전현상
보험사 금리도 오름세지만 중동전쟁 여파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년7개월 만에 연 5%대로 올라섰기 때문

초저리대출 역마진 우려… 5대금융, 이번에도 대기업 선정하나
이데일리 https://zrr.kr/Y1opeZ

최근 삼성전자에 총 5000억원의 초저리대출을 결정한 금융지주들이 두 번째 초저리대출도 대기업에 내줄 전망
자금이 절실한 것은 중소·중견기업이지만, 금리 급등에 따른 역마진 우려에 선뜻 대출 지원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

"포용금융 늘리라는데 누가 책임지나"…은행권 KPI 충돌 우려
이데일리 https://zrr.kr/2NwAYk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도입 구상을 내놓으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체율과 자본비율 중심의 기존 건전성 관리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금감원, 은행권 사회연대금융 실태 첫 점검
서울경제 https://zrr.kr/rsn1GV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회연대금융 운영 현황을 점검… 이는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처음
당국은 수익성, 건전성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장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금융이 포용금융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는 중

"MTS로 벌고 PB가 독식"…증권사도 노노갈등
한국경제 https://zrr.kr/ylR3zM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대금이 폭증하면서 담당 프라이빗뱅커(PB)가 지정되지 않은 비(非)관리계좌의 수수료 수익 분배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
거래대금 급증으로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된 지점 PB와 이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다른 직군 사이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

밤새 이어지는 코스피 베팅...야간선물 거래 연중 최고치로 '쑥'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l3SAJs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피200 야간선물 일 평균 거래대금(매수·매도 합산)은 16조6830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이 종료되는 오후 8시 이후에도 거래되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밤에 일어나는 미국 증시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가격에 반영

보험영업도 투잡 시대…삼성화재, N잡 설계사 조직 띄운 이유
블로터 https://zrr.kr/Yfslgk

삼성화재가 본업과 병행하면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는 N잡러 전용 설계사 조직을 선보이며 유연형 영업채널 확대에 나서는 모습
보험 업계에서 설계사가 고령화하고 신규 인력 조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과 디지털 친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널 다변화 전략이라는 분석

美日은 되는데...협회 · 당국 '무관심'에 손발 묶인 보험사 퇴직연금
인베스트조선 https://zrr.kr/5lAwMr

대규모 유동성 시장에서 은행과 증권업권이 퇴직연금의 약 80%에 달하는 자산을 흡수한 가운데, 보험사의 퇴직연금 자산 보유 비중은 약 20%에 불과
보험사가 제도적 제약에 갇혀 공격적 자산운용의 증권사와 탄탄한 고객 인프라를 움켜쥔 은행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고전하고 있는 모습

금융 당국, 금가분리 완화 시사… 금융사·거래소 합종연횡 가속
조선비즈 https://zrr.kr/ggUZ1s

금융 당국이 금융권의 가상시장 참여 제한 규제인 '금가분리(금융과 가상 자산 분리)' 완화를 시사하면서 대형 금융사와 거래소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할 전망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형 금융사들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비트코인 직접 사고 ETF 담고…해외는 기업이 '큰손'
뉴스1 https://zrr.kr/hj2Dq2

과거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소와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상장사·기관투자가·글로벌 은행이 동시에 참여하는 거대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판이 바뀌고 있는 모습
반면 국내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부재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 일부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만 이뤄지는 상황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